

2025/11/3

음식료

권우정 책임연구원
20240006@iprovest.com

도요수산 2QFY26 Review

- 1) 미국 가격 인상 효과로 해외 라면 OPM 27%(YoY +1.9%p, MoM +4.1%p) 달성
- 2) FY26 해외라면 영업이익 가이드نس 기존 대비 +7% 상향 조정

도요수산 2QFY26 Review

도요수산의 2QFY26 해외 라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601억엔(YoY 1%), 162억엔(YoY 8%)을 기록했으며, OPM은 27%(YoY +1.9%p, MoM +4.1%p)로 큰 폭 개선 시현. 달러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08m(YoY 2%), \$110m(YoY 10%)을 시현. 해외라면 영업이익은 \$10m 증가했으며, 이는 매출 증가(+\$25m), 원재료비 상승(-\$7m), 제조경비 상승(-\$5m), 판매비 상승(-\$3m)에 기인함.

미국은 7월 단행된 가격 인상(약 10% 추정)으로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가격 인상 효과로 영업이익은 큰 폭 개선. 멕시코는 4월 가격 인상 이후에도 견조한 판매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도요수산은 호실적 발표 후 10/31 종가 기준 주가 +9% 상승 마감.

해외 라면 연간 가이드نس 상향

도요수산은 FY26 연결 영업이익 가이드نس를 기존 760억엔 → 800억엔(+5.2%)으로 상향 조정함. 특히, 해외 라면 부문 매출 가이드نس를 기존 2,587억엔 → 2,473억엔 (-4.4%)으로 하향했으나, 영업이익은 기존 542억엔 → 581억엔(+7.2%)으로 상향 조정함. 이는 미국 및 멕시코의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반영.

미국/중남미 시장 향후 전략

미국 라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소비 부진, 유통 채널 폐점 등의 영향으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수요층인 중/저소득층 구매력 둔화로 판매량이 부진함. 또한, 유통 업체들의 폐점, 인수/합병 등도 업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중. 다만, 신규 브랜드(삼양식품)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전체 라면 카테고리는 완만한 성장 중. 참고로, 미국 라면 시장 내 수입 제품 비중은 FY21 2% → 1H FY26 10%(수량 기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삼양식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추정됨.

도요수산은 미국에서 판매량은 감소 중이나, 가격 인상 효과로 매출액은 성장 중. 하반기에는 마케팅 강화를 통해 판매 수량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캘리포니아 신공장 가동 이후 대형 마트 채널 중심의 판촉 강화 및 신제품 라인업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멕시코에서는 4월 가격 인상 이후에도 컵라면 및 봉지면 판매가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됨. 다만, 포장재 종이컵 전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 요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됨. 현재 도요수산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봉지면+용기면, 수량 기준)은 85~90% 수준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매출 내 봉지면 비중은 현재 약 14% → 5년 후 20%로 목표 중.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2025.09.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3.8	1.5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